



## 벤처리더스클럽 개최

벤처리더스클럽(공동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김한섭 KTB네트 워크 대표)은 5월 18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벤처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조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윤중현 위원장이 초청되어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금융환경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윤위원장은 "유망 벤처기업 등 미래가치산업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의 예외기준을 적용해 벤처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수적으로 자본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에는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특히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고,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벤처 캐피털 출자 확대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선물을 오는 10월 중 상장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리서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티켓링크 주관, 중기청장과 국내 단일영화관 대표 간담회 개최



협회 우성화 부회장은 티켓링크 주관으로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과 국내 대표 단일영화관 사장단 3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 영화관들의 실태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사례, 무분별한 할인제휴에 따른 토종 영화관들의 대응방안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김성진 청장은 극장시설 개보수에 싼 금리 대출 등 국내 중소 영화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성화 부회장은 "현재 국내영화산업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전국에 퍼져있는 대한민국 토종 영화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극장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더욱더 적극적인 고객마케팅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